

한미정상회담



김민소장의

탕탕평평

태도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인지를 실상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 말로 존재자체가 표리부동한 국가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수수함과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또한 현 정부는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가치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말 그대로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과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감수성을 자극해서 정부의 이미지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은 결코 국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한 두 해 진행되어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다음 달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것이 북한의 본모습이고 실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만한 대상이라면 자신의 친형과 고모부까지도 잔인하게 처형하는 정권의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보다 더 소름끼치는 일이 있을까 싶다.

물론 북한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거론은 최소화 시키고 자신들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제재와 비핵화 과정의 우선순위와 순차적인 과정에 대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냉철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분단 이후 여태껏 보여준 행동들을 철저하게 리마인드 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마인드라면 모든 것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겠지만 국가 간에 안위와 안보를 담보로 한 양보와 관대함은 그냥 미련함일 뿐이다. 현 정부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단순한 표면적 가치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회담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원만한 회담이 성사되어야만 북미회담에서도 철저하게 감춰진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암묵적인 우리 정부의 지원과 읍소로 그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논리 아닌가. 이 대목에서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만을 믿는다'는 평소 필자의 신념이 떠오른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일리풀리 정치연구소장



KT, 서울랜드서 키즈랜드 캐릭터 운동회

KT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경기도 과천 시 서울랜드에서 '올레tv' 고객 5000 가족을 초청해 진행한 'KT 키즈랜드 캐릭터 운동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운동인 '키즈랜드 캐릭터 운동회'는 지난달 KT 고객 대상 홈페이지와 올레tv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2주 만에 1만여명이 응모했다. 19일 열린 '키즈랜드 캐릭터 운동회'에 초청된 가족들이 운동회를 즐기고 있다.

/KT



한화손보, 대구 재난위기茄정 집수리 봉사

한화손해보험 재난봉사단 21명은 지난 1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학 생봉사단 80명과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추천한 재난위기茄정 9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작업과 열감지 환경경보기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한화손보가 20일 밝혔다. 이날 10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한화손보

금감원 제7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

7월 6일까지 접수, 총 100명 뽑아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6일까지 제7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어린이·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금융지식을 나누고 금융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해 왔다. 봉사단은 연수과정을 마치면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금감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 ▲FSS



금융아카데미 수료자 ▲5회 이상 금융교육 봉사 경험이 있는 자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의 금융교육을 10시간 이상 수강한자 ▲어린이·청소년 금융교육 봉사에 열정이 있는 자 등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다.

합격자는 7월 27일 발표되며, 활동기간은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 이후 최대 2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아파트 회계비용, 진짜 부담되세요?



기자 수첩

손엄지
(파이낸스&마켓부)

어야 맞다.

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아파트 평균 감사보수액은 14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따지면 2만1000원이다. 2016년 상장사의 시간당 보수는 7만 7595원이다. 회계사회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하기엔 아파트 감사 보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아파트 감사를 하고 있는 한 회계사는 아파트 감사보수는 거의 '서류값' 수준이라고 말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주면 그 증빙서류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다. 왜 외벽 페인트를 자주 칠하는지, 왜 공사비가 높게 나왔는지 등을 확인하기에는 감사비용도 시간도 적다.

여전히 아파트 회계감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김부선 사태에서도 우리는 변한 게 없고, 그래서 얻은

것도 없다. 부실한 회계감사를 틈타 여전히 담합이 난무한 곳이 아파트 관리비다.

회계사회가 지난해 발행된 총 9387개 감사보고서 가운데 9000개를 분석한 결과 4849건에 양적 개선권고가 있었고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평균 가구수(72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6만2286원을 더 낸 셈이다.

업계에서 말하는 아파트 적정 감사비는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이를 평균 가구수(700가구)로 나누면 최대 월 36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아파트 감사비에 월 360원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일까. 회계감사에 더 많은 시간,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곳이 아파트 감사다. 부실한 감사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힘 없고, 성실한 입주민들 뿐이다.

/sonumji301@metroseoul.co.kr

간협력과장 장금용 △공무원단체과장 이성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채경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장 정병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박성민

◆특허청 〈전보〉 ◆부이사관 △심사품질담당관 김희태 ◆과장급 △기공시스템심사과장 이유형

◆고위공무원 승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나주범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실장·팀장 △전력변환연구센터장 이종필 △전력기기연구센터장 송기동 △초전도연구센터장 조전욱 △전기주전연구센터장 한성태 △시스템제어연구센터장 손홍관 △절연재료연구센터장 한세원 △열전기기술연구센터장 정순종 △대전력시험1실장 이동준 △고전압시험실장 최익순 △시험평가2실장·전기시험실장 김근용 △스마트그리드기기시험실장 안상필 △대전력시험2실장 정홍수 △품질관리실장·제품인증실장 이정기 △경영기획실장 문소민

△예산실장 고성주 △사업관리실장 정광렬 △정보전산실장 남상엽 △재무실장 김용주 △구매자산실장 정상협 △시설관리실장 전용석 △성과혁신실장 김응호 △중소기업지원실장 오경연 △감사실장 강석률 △안전보안팀장 유청준

▲최일석 씨 별세, 최석재(핸드볼 남자국가대표 전 감독)씨 부친상 = 20일 오전 2시, 전남 해남군 산림조합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061-532-4444

▲정수옥 씨 별세, 남관 씨 부인상, 남근균(남근균세무회계대표) 연영(삼성전자 수석) 지영 씨 모친상, 김종철(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장) 한영하(나이스채권평가 상무) 씨 장모상 = 20일 오전 7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 천실, 발인 22일 063-250-2450



한우자조금, 그린플러그드 서울서 한우 우수성 알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환경

캠페인 뮤직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8'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노션 '세계3대 광고제' 서 본상 3개 수상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제작한 현대자동차 글로벌 캠페인 '탐험가 새틀턴', 남극 횡단 100년의 꿈을 이루다' 편이 세계 3대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했다.

이노션은 17일(현지시간)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2018 뉴욕 페스티벌'에서 '새틀턴의 귀환' 편이 은상 1개, 동상 2개 등 모두 3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은상 1개와 동상 1개는 참신한 기획을

통해 전략적 마케팅 목표를 달성한 우수 작품을 조명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이큅티브니스 부문에서 수상했다. 또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동상 1개를 추가했다.

한국 국제광고제 및 클리오 어워드를 포함해 세계 3대 광고제로 불리는 뉴욕 페스티벌의 2018년 수상작은 57개국 400명 이상의 광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